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태권도진흥재단-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국기원(원장 윤웅석),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와 업무협약을 맺고 '태권도유네스코등재추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차기 등재' 신청대상 공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9일,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는 '지원위원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에 요구되는 사항 지원'과 '등재 신청서 제출 이후 국가유산청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및 협력',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등에 관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윤웅석 국기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사무총장과 부원장이 실무 위원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지원위원회' 구성에 앞서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날 '태권도유네스코등재추진지원 IT팀'을 구성했다. 사무총장과 국립태권도박물관장, 전략기획실장 등 주요 인력이 참여하여 유네스코 등재 신청 및 후속 조치, 정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왔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1988년 서울올림픽 태권도 금메달(시범종목)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금메달(정식종목)(국립태권도박물관 내 기증품)

차기 등재 신청서 제출에 앞서 진행된 '종목명 우선 제출' 기한인 11월 19일에 '태권도'를 종목명으로 국가유산청에 제출했고 이날 19일까지인 공모 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이자 무예, 스포츠인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

형유산 등재 추진은 태권도계의 오랜 열원"이라며 "태권도 주요 단체를 비롯한 모든 태권도인들의 마음을 모아 국기 태권도가 인류 공동의 문화이자 무형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위임국도 13호선 42.5km, 지방도 6개 노선 108km, 군관리 16개 노선 80km,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42.9km, 도시계획도로 10km 등 관내 도로를 대상으로 제설계획을 마련해 폭설 시 단계별로 제설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겨울철 설해 대비 총력 점검

장수군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종합 설해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국도·지방도 등 주요 간선 및 생활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제설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구간별 제설 계획을 마련해 폭설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초기 대응 역량을 점검 중이다.

장수군은 이날 점검에서 도로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제설장비와 자재 확보 상황, 현장 대응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장수군은 입대차량 3대, 덤프트럭 3대, 다목적 차량 등 제설장비 가동 준비 상태와 점검하는 한편, 제설할 운영과 인력 배치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살피며 폭설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체계를 강조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국가암검진 분야 3년 연속 '우수'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가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수검률 38.7%로 2025년도 국가암관리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국가암검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무주군

의 유방암 수검률은 44.6%로 1위, 대장암도 28.9%로 1위를 기록했다. 국가암 수검률 전국 평균은 35.8%, 전북 평균은 34.6%다. △군민 맞춤형 검진 확대, △접근성 및 편의 증진 부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암 검

진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라북도 도내에서 보건기관 중 국가암검진 수검률 1위를 기록했으며, 국가암검진 외에도 난소암, 전립선암, 폐암, 저선량 CT 검사 등 무주군 자체 암 검진 사업을 진행해 검진의 폭을 넓혔다. 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국가암검진 상담소를 통해 검진을 독려하는 등 주민들의 암 검진 문턱을 낮추며 수검률을 향상시켰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 '최초의 도전, 장수 100마일 트레일레이스' 정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 '대상'

장수군, '최초의 도전, 장수 100마일 트레일레이스' 정책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 '최초의 도전, 장수 100마일 트레일레이스' 정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최초의 도전 장수 100마일 트레일레이스'로 여는 산악 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민간의 산악 레저 스포츠 전문성을 지역 산악 자원에 접목해 장수를 산악레저의 성지로 만들었다는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군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적재적소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장수 100마일 트레일레이스' 정책은 인구 2만 3백여명 규모의 지방소멸위기 고위험지역인 장수군이 풍부한 산악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활력 전략을 모색하며 추진돼왔다.

지난 2022년 '러닝코루'라는 청년단체의 활동을 계기로 시작된 '장수트레

일레이스'는 첫째 150명 규모로 시작해 매년 참여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올해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에서는 국내 최초 100마일 코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 참가자 2,000여 명이 찾는 전국적 대회로 성장했다.

또한 장수군은 지역 내 산악지형을 활용해 코스의 안전성과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블랙야크 인증 프로그램 △지역축제 협업 △지역 상권 연계 운영 등 다양한 산악레저 프로그램은 대회의 지속성과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장수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산악레저 관광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지역의 장점을 기반으로 한 장기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4회 연속 자적 유지

진안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하며 4회 연속 자적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자녀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적용,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2017년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0년 유효기간 연장,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이번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2028년 11월 말까지 가족친화 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히 이번 재인증에서는 공공기관 평균(92.7점)을 크게 웃도는 98.4점을 기록해 가족친화 행정 문화 조성 노력의 성과를 입증했다.

높은 점수의 배경에는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사용 등 실질적인 가족친화제도 정착과 실질적 이용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근로자 건강지원제도 운영, 가족참여 프로그램, 가족 친화 직장 교육 실시, 민원 상담 치유, 가정의 날 운영, 장기근로 휴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직원이 체감하는 가족 친화 문화를 견고히 해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귀농 귀촌 정책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10일 귀농귀촌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귀농귀촌 정책 추진결과 보고와 2026년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진안군 귀농 귀촌 정책위원회는 관련 부서 및 귀농 귀촌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귀농 귀촌인 유지 및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 귀농 귀촌인 고충 처리 협의 및 귀농 귀촌 홍보,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 체험 교육시설 운영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귀농 귀촌 준비-이행-정착을 위한 체류형 체험·교육 강화,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중심의 충실한 사전 준비 체계 마련, 주거·자금·일자리 지원 강화,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소통 확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단계부터 정착 및 창업까지 연계된 우수 사례가 소개되어 이를 통해 주거 정착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장인 주영환 진안부군수는 "귀농 귀촌인 유치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핵심 전략"이라며,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10일 무주 최북 미술관에서 소속 직원 및 근로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와 재해예방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담당자는 직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 산업안전 사고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직무스트레스 감소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안전보건 캠페인도 병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